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여기는 평창입니다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6. 7.(수)	담당부서	통상협력총괄과, 미주통상과 전자전기과, 신재생에너지과 섬유세라믹과
담당과장	김기준 과장(044-203-5680) 박찬기 과장(044-203-5650) 김종주 과장(044-203-4340) 이진광 과장(044-203-5160) 양병내 과장(044-203-4290)	담 당 자	이정은 서기관(044-203-5681) 이디도 사무관(044-203-5656) 방규철 사무관(044-203-4343) 박병기 서기관(044-203-5172) 이영열 사무관(044-203-4298)

민·관합동 「미국 수입규제 대응 회의」 개최

- 미 세탁기·태·양광 세이프가드, 섬유 반덤핑 조사에 적극 대응키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주형환)는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,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반덤핑 조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**미국의 수입규제 조치**에 대해 관련 업계와 협회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.

* 미국 태양광 셀·모듈 세이프가드 조사개시(5.17), 세탁기 세이프가드 제소(5.31), 폴리에스터 단섬유 반덤핑 조사개시(6.1)

<미국 수입규제 대응 회의 개요>

○ **일시·장소 :** '17.6.7(수) 10:00, 무역협회

○ **참석자** : **(정부) 통상협력국장**, 통상협력총괄과, 미주통상과, 전자전기과, 신재생에너지과, 섬유세라믹과 / **(업계)** 전자·태양광·섬유 기업 및 협회

□ 그동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**주로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에 집중**되었으나,

○ 최근 **태양광, 섬유 등의 품목으로 확대**되고 있고, 신흥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발동하는 **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**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.

□ **태양광 및 가전업계**에서는 미국이 '01년 이후 **지난 15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조사를 개시한 사례가 없음**에도 불구하고,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에 더 이상 **조사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**인 바,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.

* 미국은 '01년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('02.3월 조치 시행) 이후 지난 15년간 세이프가드 조사 전무(全無)

○ **태양광업계**는 세이프가드 **조사 개시 직후 공동으로 미국 현지 대리인 선임** 등 대응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였으며, **가전업계도 협회**(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)**와 공동 대응팀을 운영**하며 **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** 조사개시 여부 등 **현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**하고 있다.

* (태양광) 공청회(8월) 후 산업피해 판정(9월), (세탁기) 6월중 조사개시여부 결정

□ 한편, **섬유업계**는 **대미 수출에서 폴리에스테르 단섬유**(3데니어 미만)가 차지하는 **비중은 작으나**(0.8%), **다른 섬유제품으로 수입규제 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**하여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.

* '17.7.17일 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예정, 6월중 상무부 반덤핑 조사개시 여부 결정

□ **산업부**는 초기단계부터 **민관 공조체계를 구축**하고, **현지 공관, 업계와 함께 점검을 강화**하는 한편,

○ 미국 **주요인사들 면담** 계기에 **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**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.

○ 또한, 이달중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「**수입규제협의회**」(통상차관보 주재)**를 개최하여 대응전략을 마련**하고, 중소·중견기업 대상 **전문가 컨설팅, 수입규제 세미나·교육**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이정은서기관(☎ 044-203-568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